

## 韓國型 우주개발에 전인차역할 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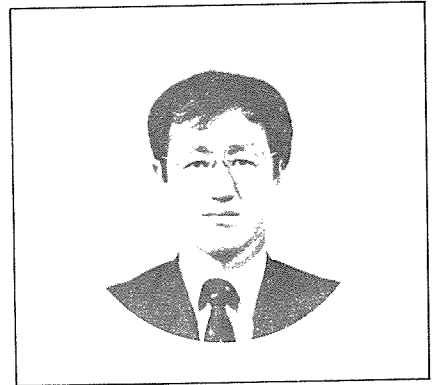
宇宙開發전담기구 설치 · 制度的장치 강구해야

『우리나라의 宇宙科學技術開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美國의 NASA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는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등 相關단체들이 公同협력체제를 구축해 한정된 財源과 研究人力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수한 専門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先行되어야 할 當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韓國宇宙科學會 朴景允회장(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초빙연구원)은 다가오는 宇宙時代에 있어서 人工衛星, 地球 주변 宇宙空間의 활용, 資源과 에너지문제 및 環境改善을 위한 우주개발사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宇宙科學의 기반을 구축하여 韓國型우주과학기술개발에 보다 積極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박차를 가해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朴회장은 지금 세계 各國은 宇宙産業에서 先頭走者로 나서기 위해 온갖 첨단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우주과학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 시대적인 요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주과학기술개발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에따라 國家的인 차원에서 政策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웃 日本만해도 우주과학기술개발을 전담하는 「宇宙開發事業團」을 두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는 형편이므



◇ 朴景允 회장

로 우리도 하루빨리 우주개발사업전담기관을 설치해 다가오는 우주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주과학분야는 첨단과학기술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만으로 先進國을 뒤따라가기에는 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과 능력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여 참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朴회장은 그렇게 볼 때 우리의 現실정으로는 遠隔探査(Remote Sensing)분야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지적한다.

『리모트 센싱은 가장 과학적이고도 신뢰성이 높은 최신 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을 제시하기 때문에 리모트 센싱 기술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宇宙空間에서 홍수처럼 쏟아놓은 각종정보자료들

을 유용한 자료로 탈바꿈시킬 수 있지요』 박회장은 이러한 리모트 센싱분야는 국방과학에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지만 지구촌의 모든 생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각국이 리모트 센싱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한다.

美·蘇 양강대국은 물론 英·日·佛·獨·伊·오스트리아 그리고 인도와 중공까지 각종 위성을 쏘아올리고 있으며 동남아에서는 대만마저 이 경쟁에 뛰어들 체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위성을 한가지도 보유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위성자료를 직접 수신·응용하지 못하고 美·日 등의 자료를 중계·수신해왔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독자적인 수신 및 분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컴퓨터관련산업이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마이크로 컴퓨터의 보급과 소프트웨어개발이 활발하여 리모트 센싱기술의 국내연구개발과 보급여건이 성숙되고 있는데 특히 몇몇 연구기관에선 리모트센싱연구팀을 두어 원격탐사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몇몇 대학에서는 리모트 센싱강좌를 개설하여 연구인력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모트 센싱 연구개발의 저변확대로써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오는 90년대의 세계우주산업시장규모가 1천억달러를 상회할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위성외에 안테나 송수신설비·비행선·탐사로켓트 개발과 우주통신분야의 관련부품 공급에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박회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강구와 이에따른 저변확대를 위해 學會 학술활동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주과학기술에 관한 프로젝트가 많아야 함은 물론 學會가 활성화되어야하며 산업체의 활동 또한 활발해야 합니다』 박회장은 이제 겨우 태동기에 들어선 우리나라우주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기위해 지난 84년 5월 탄생한 韓國宇宙科學會가 바로 官·産·學·研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지난 3년간은 학술발표와 논문집발간등 學會의 內實化에 주력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국제수준급의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국제교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박회장은 이와 함께 우주과학이 인류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우리국민 모두에게 심어주어 우주과학분야가 보다 빨리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인다.

『이제 우리는 50년대의 原子力時代에서 80년대의 宇宙科學時代로 출달음쳐오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은 우주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됨으로써 베일에 쌓인 우주의 신비를 한꺼풀씩 벗겨가고 있지요』 박회장은 지구자원에 대한 한계성이 심각해 질수록 우주개발에의 도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宇宙개발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 記〉